

수제맥주, 대한민국 들썩이다

군산맥이로 만들어... 군산시, 도시 브랜드화 힘써

군산맥이로 만든 수제맥주가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부터 실시하는 제1회 수제맥주 페스티벌을 진행하기까지 다양한 시도와 노력으로 군산의 수제맥주 도시브랜드화에 힘써왔다. 군산맥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양조용 맥아브랜드다. 품질면에서도 수입맥아와 비교해 수제맥주 양조용으로 손색이 없다. 군산수제맥주는 맥주 고유 원료인 맥아 이외의 알콜발효를 위한 전분이나 당을 첨가하지 않는 100% 완전 곡물맥주다. 군산 수제맥주의 특징은 거품이 풍부하고 맥아향이 진해 밍밍하지 않고 입안 가득 정통 맥주의 풍미

를 느낄 수 있다. 군산시는 국내 최초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수제맥주 원료 국산화에 처음 도전했다. 생산장비, 제조기술, 전문인력 등 관련정보나 기술적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에서 수제맥주 원료 국산화에 대한 도전은 결코 쉽지 않았다. 군산은 경작지의 90%가 답으로 미맥류(쌀, 보리) 위주의 농업생산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보리는 이모작 작물로 군산 농업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소득 작물이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이후 보리 수매 중단으로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대한 불안정에 따라 보리재배에 큰 위기를

맞게되고 시는 보리의 다양한 소비처 확대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보리 가공사업 육성에 노력해왔다. 지난 2019년부터 최상의 맥주원료 생산을 위해 지역에 최적인 맥주보리 품종 선정부터 재배단계의 품질 관리를 위해 농업인들을 교육하고 맥주보리 전용 재배단지 32ha를 조성했다. 2020년에는 군산맥이 제조시설을 구축하고 맥아제조기술을 확보 표준화된 군산맥이 제조공정도 개발을 완료했다. 특히 지역특산 수제맥주 창업을 위한 양조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청년들을 10여개월 동안 양조기술 전문교육에 공을 들여 예비창업자 10여명의 도시재생과 연계해 200여석의 체험 판매장 '군산보어포트'를 조성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가 원광보건대학교(총장 백준홍)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박차를 가한다

영유아 창의·안전 체험학교 운영

익산시, 원광보건대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협력

익산시가 원광보건대학교(총장 백준홍)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원광보건대학교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영유아 514명을 대상으로 '똑딱! 똑딱! 창의·안전체험 프로그램(부제: 포켓몬과 함께하는 WU 안전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학교 프로그램은 지난 7월 4일 익산시와 원광보건대학교, 익산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한승호), 익산시 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 김복덕)가 함께 맺은 영유아 및 아동 안전체험 프로그램 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했다. 원광보건대학교 학생들이 진행하는 창의·안전 체험학교 프로그램은 △항공기 탑승 안전 체험 △3D 시뮬레이션

재난 안전 체험 △무드등 만들기 △교육미술관람 등의 실내체험과 △소방안전체험 △비누 만들기 △자동차 만들기 등의 실외 체험으로 구성됐다. 영유아들이 이번 체험학교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항공사 소방관 등의 직업에 대한 흥미를 갖고 안전 체험 및 만들기 체험을 통해서 주제적이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시와 원광보건대학교는 연차별로 치아관리 체험활동, 건강안전 체험활동, 베이비 마사지, 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점차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원광보건대학교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통계활용 시민 맞춤형정책... 호남 '최고'

'2022년 지역통계 정책활용 최우수 기관' 선정

익산시가 지역 통계지표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시민 맞춤형 행정이 호남권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시에 따르면 호남지방통계청 주관 '2022년 지역통계 정책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시는 최우수상과 장려상 등 2관왕을 석권해 명실상부한 호남 최고 통계 활용 우수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였다. 또한 지역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 통계에 기반한 객관적, 과학적 행정문화를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호남지방통계청의 이번 공모전은 지역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호남·제주권 45개 지자체의 지역 통계 정책 활용 사례를 대상으로 지역통계 개발 개선 노력과 인프라 강화 등 5개 평가지표를

심사했다. 시는 '귀농귀촌 실태분석에 의한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사례에서 전국 및 익산시의 귀농·귀촌 실태를 파악·분석해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귀농귀촌 실태' 통계를 기반으로 도시민의 인구 유입 경쟁력 강화와 성공적 정착을 위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귀농·귀촌 이전에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추진한 인턴실습농장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농업창업자금 이차보전 등 6개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장려상을 수상한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 작성 및 활용'

은 청년의 교육, 일자리 창업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각 기관의 행정자료를 수집·가공해 '익산시 청년통계'로 개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은 11월 중 호남청 지역발전포럼에서 진행되고, 선정된 우수사례는 올해 말 발간 예정인 '호남청 정책활동 사례집'에 수록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수상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내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스마트행정을 추진한 노력의 결실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통계를 적극 활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통계기반 행정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5월 부서별 208개의 통계 활용 맞춤형 정책 사례를 발굴해 우수사례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가수 김용임, 익산시 홍보대사로 위촉

익산 출신이자 트로트 '사랑의 빛깔'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은 가수 김용임이 익산시 홍보대사로 나서게 된다. 시는 지난 16일 정현을 시장과 트로트 가수 김용임을 비롯한 호남지역 팬클럽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 위촉식은 지난해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가수 김용임은 익산시 홍보대사로 2년간 활동하며 지역을 널리 알

리는 역할에 동참하게 된다. 익산 출신인 김용임은 지난 1984년 KBS 신인가요제에서 '복련'으로 데뷔한 이래로 지금까지 대중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며 활동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다. 특히 2008년에 발표된 '사랑의 빛깔' 노래를 통해 트로트계 대세 반열에 올라 활약한 바 있으며, 지난 2020년 '나는 트롯가수다' 우승과 지난해 한국가

요자가 협회에서 최고 가수상을 받는 등 꾸준히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전 국민이 사랑하는 애창곡 주인공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더 활약하는 모습과 함께 지역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익산시를 널리 알리기 위한 국내·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국회도서관, 나포작은 도서관에 500권 기증

나포면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 속 독서분위기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 나포작은도서관은 지난 16일 국회도서관의 도서기증사업에 선정돼 도서 500권을 지원받았다. 이날 오후 2시, 나포작은도서관에서 도서 기증식이 개최됐으며 이 자리에는 신영대 국회의원, 이명우 국회의원장 조경권 국회의원정보국장, 김영일 군산시의회의장 군산시의회의 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국회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직 국회의원의 요청을 받아 지역도서관, 학술연구원, 학교도서관 등에 책을 기증하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보건소,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실시

군산시 보건소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8일 '2022년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4개반을 편성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이용시설을 주·야간에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흡연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도시공원, PC방,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과 학교 주변 등 간접흡연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국민건강증진법과 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안내문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꽂이배기 기준 준수 사항 점검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시설 위반 행위 적발 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행안부 신중년 일자리센터 공모 선정

익산 인구 3분의 1을 차지하는 익산 신중년들을 위한 일자리 허브가 탄생한다. 익산시의 '신중년 일자리센터'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내년 운영을 본격화한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해, 신중년들의 접근성이 높고 인구 이동량이 많은 도심권 내 센터를 건립해 내년 상반기에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신중년 일자리센터 건립은 민선 8기 정현을 시장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앞으로 익산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9만여 5000 신중년 세대 일자리 정책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센터는 신중년을 위한 취·창업지원,

경력개발 교육지원, 커뮤니티 지원사업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중장년층 취업특성을 고려해 이직 및 전직 지원 전문 상담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생애주기별 교육과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한 중장년 창업과 관련 창업 컨설팅·세미나, 아이디어 공유·협력 등 예비창업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신중년은 지금의 익산을 일구어 낸 세대로 사회경험과 연륜을 퇴적 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익산형 신중년 정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